

## ‘광주형 일자리’ SUV 경차 생산 현대차 완성차 공장 하반기 착공

광주시·현대차 합작법인 올 상반기 설립 ... 투자자 모집

광주시와 현대차가 참여하는 완성차 공장 운영 합작법인이 올 상반기 설립된다. 시는 현대차, 지역노동계와 함께 2021년 하반기 공장 가동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추가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또 자기 자본금 외 사업비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재무적 투자자로 해 총량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광주시 590억원(21%)과 현대차 530억원(19%)을 제외한 자기자본금 1680억원(60%)은 지역 상공인 및 업체, 현대차 관련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투자를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사업 전망이 충분한 만큼 추가 투자자 모집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투자금 7000억원 가운데 나머지 4200억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타 금융권에서 조달한다.  
추가투자자 모집을 끝내면 곧바로 설립될 합작법인이 공장 설립·운영계획을 수립, 올 하반기 빛그린산업단지 내에 공장

을 착공한다는 것이 시의 복안이다. 합작법인의 대표는 자동차 판매와 경영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신설 합작법인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투자보조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생산하게 될 차종 역시 단계적으로 수요가 있는 SUV 경차로 하되 장기적으로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종으로 바뀌어 가기로 했다.  
이 시장은 “SUV 경차는 현대차가 개발 중이며, 그 품질은 걱정할 것이 없다”며 “여기에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 가격경쟁력까지 갖췄기 때문에 내수, 수출 등에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친환경차종이 자리를 잡는 시점에는 라인업을 바꿔 전기차, 수소차 등을 생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설이나 라인 전환 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현대차의 투자로 인해 기아차 광주공장도 함께 광주가 자동차 공장 2곳을 갖게 되면서 자동차 부품기업, 연구소 등의 추가

투자도 잇따를 예정이다. 3030억원이 투입되는 빛그린 산업 단지 내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활기를 띠 전망이다.  
한편, 신설법인 생산공장은 빛그린산업단지 내 19만평 부지에 들어선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초임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원 수준으로, 임금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적정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되 1주 12시간 내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도급 간 공정거래 등 원화정 간 상생협력, 노사공동 책임경영 등 이념 사업은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을 충실히 반영했다. 현대차는 신규 차종의 위탁·판매, 신설법인 공장 건설 및 생산 운영, 품질 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을 맡는다.  
시는 행복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 통근버스 등 교통, 육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근로자 건강증진, 개방형 체육관, 산재 예방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아쉬운 작별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 KTX 승강장에서 한 가족이 명절을 보내고 상경하는 손주에게 입맞춤하며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서민경제 침체 ‘우려’ ... 광주형 일자리 ‘기대’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설 민심

선거제 개혁·북미회담 관심

올해 설 연휴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침체하고 있는 서민경제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이었다. 광주형일자리와 한전공대 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컸다. 최근의 정치·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더욱 정진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정치권에서 진행중인 선거제도 개혁과 정세 개편 움직임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오는 27~28일 열릴 북미회담이 편으로 평양을 방문했으며,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주재 북한대사와 회담에 착수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있어,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형태의 중전선언 및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형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컸고, 광주형일자리 타결과 한전공대 확정 등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대선공약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전남 여수) 의원은 “재래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제값해 준,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병완(광주 동·남구갑)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 속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까지 심화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투자자금 유치, 사업성 확보 문제 등 난관이 많은데도 정치적 논리로 흘러가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민심을 전했다.  
같은 당 박지현 의원(전남 목포)은 설 민심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지지와 민생경제 비난으로 요약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가 DJ(김대중 대통령) 햇볕정책을 잘 이어가고 있다는 데 높은 평가를 보냈지만, 민생경제에 대한 어려움으로 현 정부의 민생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비난의 강도가

높았다”고 지역구 민심을 대변했다.  
이밖에 서민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 내부의 잇단 공직기강 해이 사건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부패 특검 의혹, 김병진 민주당 최고위원의 “정당간 경쟁구도가 이뤄져야 정당의 오만과 독선을 막을 수 있다”는 여론이 많았다”면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 움직임에는 크게 기대를 보이지 않고 있고, 향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이후 정세게편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2차 북미정상회담 27~28일 베트남서 개최

개최지 하노이 보다 다낭 관측  
비건-김혁철 평양서 실무협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의 중대 분수령이 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베트남에서 개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트럴사저에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260일 만이다. 이에 따라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담았던 1차 정상회담의 결과를 진전시켜, 구체적인 실질적인 성과를 담은 ‘빅딜’을 성사시킬 지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2면>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에서 행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2월27

일과 28일 베트남에서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구체적인 개최 도시는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의 인질들은 집에 왔고 핵실험은 중단됐으며 15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는 없었다”며 “만약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이 베트남 내 어느 도시에서 개최되는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경호와 보안에 용이한 휴양도시인 다낭과 베트남 수도이자 북한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가 거론되고 있으나 다낭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차 정상회담의 최대 관련 포인트는 트

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과연 ‘통 큰’ 양보와 결단으로 1차 정상회담 이후 장기 교착 국면에 빠진 비핵화 정국에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 발표와 더불어 북미는 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 가동을 본격화했다. 미국 측 협상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날 비행기 편으로 평양을 방문했으며,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주재 북한대사와 회담에 착수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있어,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형태의 중전선언 및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HNT 하나투어**

**하나팩**

**단 2회! 2월 9일(토), 2월 13일(수)**

**무안→캄보디아 앙코르왓여행**

**우리가 지금, 앙코르왓에 가야하는 이유**

ARPF01 **캄보디아/앙코르왓 4일,5일**

**699,000원~**

현지지불 가이드, 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유적지 관광, 압살라 민속쇼 디너뷔페, 특특이 탐승

※선착순 좌석 마감됩니다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여행상품 가격표항목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생보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식/차량료,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요금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급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도착비지: 도착비지를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지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입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택시(상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친선/불만처리: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항공권 또는 항공편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의 금액 및 선택관광 및 선택 시 대체할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여행 단거별 국가 지정 현행 1) 여행 유의 2) 여행 자재 3) 필수 권고 4) 여행 금지

안심결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